

책의 갈피마다 묻은 고된 답사의 발자국, “절반의 완간, 북한 답사여행의 길잡이도 펴낼 것입니다” 돌베개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



목적 없는 여정, 허공에 들린 걸음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와 함께 길을 떠나보라. 누구보다 든든한 길벗이 되어 줄 것이다. 전북에서 경주로 지리산자락에서 팔공산자락으로, 한국문화유산답사회(대표 유홍준)가 10년 넘게 발품을 팔아 ‘따북따북’ 내놓은 책이 열다섯 권. 《서울》을 마지막 권으로 한국문화유산답사회가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의 대단원을 갈 무리한 덕분에, 우리는 오래고 즐거운 여정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 편집자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리즈
“유홍준 선생님이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199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유 선생님의 주관적이고 비평적인 시각에 독자들은 매료되었지요. 답사지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는 책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돌베개에서 유 선생님께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시리즈를 책임편집한 돌베개 김혜영 편집부장에 따르면 답사여행의 길잡이는 처음 10권으로 기획되었다. 1994년 《전북》과 《경주》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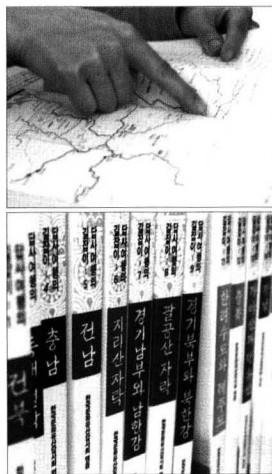
내놓은 한국문화유산답사회는 나머지 여덟 권을 채우는 데 5년이면 족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나 속도가 날 것이라던 생각과 달리 작업은 번번이 정체를 맞았다. 노하우가 부족했다면 실마리를 찾기 쉬웠을 터였다. “조금 더 정교하고 완벽한 정보를!” 하고 외치다 얻은 정체인지라, 허우룩한 마음을 채우기 전에 속도란 생각할 수 없었다. 첫 권 《전북》과, 무려 200쪽이 증면된 마지막 권 《서울》 사이의 변화는 한국문화유산답사회의 순박한 욕심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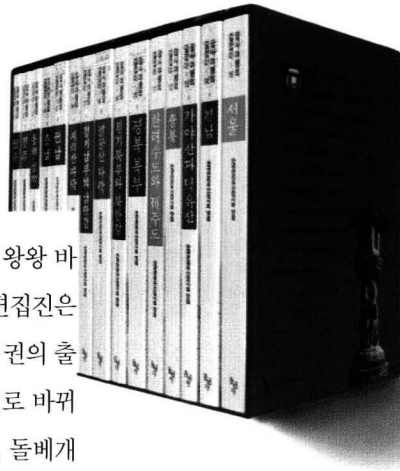
김 편집부장은 “열 권 목록에 다섯 권이 더해진 것도 늦은 완간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완간에 결코 오랜 시간이 든 것은 아니다”고 돌이켰다.

“관련 당국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20년 안에 못 만들어낼 것’이라 했지요. 각 지역 전문 필자들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작에 소요된 시간은 십이 년이지만, 한국문화유산답사회가 이전부터 부지런히 닦아놓은 답사코스이기도 했지요. 문화적 흐름을 따른 답사동선도 돋보이지만, 그곳을 안내하는 책의 정보는 ‘살이 떨릴 만큼’ 정확합니다.”

목표한 지점이나 특정 지역을 설명할때면 “삼거리 슈퍼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800미터 정도 가면 이정표가 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커브를 틀 때는 앞에서 오는 차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식이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친절은 독자들을 사로잡았지만, 쇠를 거듭할 때마다 신경 써야 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정표가 되어주었던 건물들은 업종을 변경, 간판을 바꾸기 일쑤였고,





국도 번호, 버스 노선, 답사처의 입장료도 왕왕 바뀌었다. 그것만한 난관이 있을까 싶은데, 편집진은 예상외로 힘들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다음 권의 출간을 재촉하는 많은 마니아 독자들이 무시로 바뀌는 현장정보를 수시로 알려왔기 때문이다. 돌베개와 한국문화유산답사회가 책을 기획하고 시작했지만, 고쳐 쓰는 일은 독자들과 함께했던 셈이다.

● 하이라이트판 준비...미담의 영역 북한 답사도

김 편집부장은 “많은 부분 정교함을 요구하는 시리즈였지만, 그 가운데 지도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책의 앞부분에는 해당지역 전체 지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중심 답사지를 아우르는 반경이 네모로 표시돼 있다. 중심 답사지를 설명한 쪽으로 넘어가면 네모로 표시된 지도가 더욱 상세히 마련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다시 답사지의 상세 위치가 네모로 그려져 있다. 클릭하면 상세보기가 가능한 온라인 웹지도도 오프라인 종이책에서 실현한 듯해 흥미롭다.

“전체지도와 거기서 파생된 상세지도를 충돌하지 않게 정리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책에 사용된 지도는 만들어진 기존 지도가 아닙니다. 답사여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자, 책에 사용된 모든 지도를 손수 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는 재미가 각별하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의 또 다른 특별함은 ‘답사여행’에 있다. 앞서 열 네 권의 책이 출간될 때마다 한국문화유산답사회와 독자들은 즐거운 답사를 다녀왔다. 책 가운데 가장 특별한 코스가 마련되었고, 해거름이면 숙소 마당에서 유홍준

교수의 특별강의가 덤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권 《서울》이 나오기 전부터 답사여행은 언제 준비되느냐는 열혈독자의 문의는 대단했다. 김 편집부장이 밝히는 서울답사여행은 늦어도 3월경으로 마련될 예정, 시리즈 완간기념으로 돌베개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떠날 계획이다.

“답사여행을 떠나면 우리 지역도 훌륭한데 왜 목록에 없느냐고 섭섭해 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들은 분명 있기 마련이지요.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한 지역 안에서도 코스 답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선정 작업을 엄격하게 진행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재정지원 없이도 부지런히 답사지를 밟고 의미를 기록한 한국문화유산답사회의 노고를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한편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의 완간은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간은 돌베개에게 터닝포인트일 뿐이다. 돌베개는 현재 전국 최고의 답사지들을 가려 모은 ‘답사여행의 길잡이 하이라이트판’을,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답사여행의 길잡이’를 기획, 준비하고 있다.

돌베개는 이번 시리즈를 완간하는데 계획된 예산보다 많은 돈을 들였다. 김 편집부장은 손익분기점을 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 것이라 애기한다. 그래도 돌베개에서 꿈을 꾸는 건, ‘답사여행의 길잡이’ 북한편 시리즈를 만드는 것이다. 김 편집부장은 “오늘의 완간은 절반의 완간’이기도 하며,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잊지 말고 주목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취재 | 박용두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